양촌선생(陽村先生) "주역천견록(周易淺見錄)"

▣ 이 광 호 (연세大 철학과 학과장)

〈지난호에 이어〉

육이(六二) 울리는 겸(謙)이다[鳴謙].

'상전(象傳)' 마음 속에 얻은 것이다[中心得也].

상육(上六) 울리는 겸이다[鳴謙].

'상전(象傳)' 뜻을 아직 얻지 못하였다[志未得也].

두 효에 모두 '울리는 겸[鳴謙]'의 상(象)이 있지만 마음과 뜻을 얻고 얻지 못한 차이가 있는 것은 왜인가? 겸이란 공손하게 자기를 낮추려는 도리이다. 육이는 하괘의 중앙에 자리하니 이는 겸손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룬 것이고 그의 기쁨은 소리와 얼굴색으로 드러나므로 바르고 길하다. 상육은 겸의 극이 되고 괘의 맨 위에 위치하여 겸이 극에 이르러 도리어 높은 곳에 자리하니 겸손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고 그러한 감정이 말과 얼굴색에 드러난다. 그러나 윗자리에 머무는 도리는 지나치게 순종적이거나 겸손하게 낮추어서는 안 되므로 군사를 움직이는 데는 유리하다. 곤체(坤體)에 자리하므로 낮추고 순종하는 것이 되고 강(剛)에 응하므로 군사를 움직일 만하다. 그렇지만 자신은 굳세고 바르므로 읍국 정도만을 정벌할 수 있다.

예(豫)

구사(九四) 즐거움이 이로부터 생긴다. 큰 것이 얻음이 있으니 의심치 말면 벗이 비녀로 합한다[由豫. 大有得, 勿疑, 明盍簪].

서씨는 "'대(大)'는 강(剛)이다. 하나인 강이 다섯 유를 얻었으므로 '큰 것이 얻음이 있다'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오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음(陰)은 의심이 많은데 음에 자리하고 있으므로 의심치 말라고 경계하였다. 구사인 하나의 강이 다섯 유를 꿰뚫고 있는 것이 마치 비녀 하나로 많은 머리카락을 꿰뚫고 있는 상과 같다. '큰 것이 얻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인 강이 여러 유를 얻는다는 의미이고, '벗이 비녀로 합한다'는 것은 여러 유가 하나인 강과 합일한다는 뜻이다. 구사가 정녕 여러 음을 얻을 수 있고 또 의심치 않는다면 여러 음이 모두 마음을 돌릴 것이다."

내가 생각건대, 이 효에 포함된 '큰 것이 얻게 된다'는 뜻을 근거로 미루어 보면 대유괘에서 "큰 것이 중하고 아래위가 그것에 응한다"고 한 것은 구이(九二)를 위주로 한 것이지 육오(六五)를 위주로 한 것이 아님이 더욱 명백해진다. 오징은 '벗'을 여러 음으로 보았다. 그런데 벗은 같은 류이다. 구사가 양강(陽剛)이므로 여러 음은 같은 류가 아니다. 그런데도 여러 음을 벗으로 본 것은 구(九)가 비록 양강이지만 음에 자리하고 있으므로 여러 음을 벗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위아래의 신임을 얻어 '즐거움이 말미암는[由豫]' 공을 이루고, 천하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게 한다는 것이다. 효에 이러한 상이 있으므로 괘에 동일한 덕을 지닌 양이 없다고 하여 반드시 밖에서 얻어야 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설은 견강부회(牽强附會)인 듯하다.

수(隨)

크게 형통하나 바름이 이롭다. 허물이 없으리라[元亨, 利貞. 无咎].

수라는 괘는 안은 움직이고 밖은 기뻐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나는 움직이고 저는 기뻐하는 상이니 그 때문에 수(隨)가 된다. 위아래가 기쁘게 따르면 그뜻이 반드시 통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서로 기뻐하는 것에는 간혹 이치에 맞지 않거나 도를 굽혀 합치하는 경우가 있다. 그때는 그들의 마음과 뜻이 통하더라도 어찌 허물없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 때문에 반드시 바름을 얻어 이로운 뒤에야 허물이 없게 된다.

'상전(象傳)', 못속에 우레가 있는 것이 수(隨)이다. 군자는 그것을 본받아 날이 어두워지면 들어가 편안하게 쉰다[澤中有雷隨. 君予以嚮晦, 入宴息].

진(震)이 아래 있고 태(兌)가 위에 있어 우레가 못에 들어가는 상(象)이다. '우레는 봄·여름 땅에서 나와 뒤흔들어 놓고 가을·겨울에는 땅속으로 들어가 숨는다. 우레가 못속에 있다는 것은 들어가 잠복하는 때이다. 일년에 가을·겨울이 있는 것은 마치 하루에 황혼이 있는 것과 같다. 군자는 우레가 못속에 있는 상(象)을 보고 날이 어두워지면 들어가 편안하게 쉰다.초구(初九) 주장하고 지킴에 변화가 있으니 바르면 길하다. 문밖에 나가 교제하면 공(功)이 있으리라[官有渝, 貞吉, 出門交, 有功].

'상전(象傳)' 주장하고 지킴에 변화가 있으니 바름을 좇으면 길하다. '문밖에 나가 교제하면 공이 있다'는 것은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官有渝, 從正吉也. 出門交有功', 不失也].

내가 생각건대, 이 괘 하체(下體)에 있는 세 효 가운데 육이는 "소자에게 매이면 장부(丈夫)를 잃게 된다", 육삼은 "장부에 매이고 소자를 잃는다"고하여 모두 사사로이 매여 잃게 되지만, 유독 초구만은 '문밖에 나가 교제하여' 사사로이 매이지 않으므로 '잃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 '투(는 변하다의 뜻이다. 변하면 항상 됨을 잃게 되나 변하되 정도(正道)를 따른다면 잃는 것이 없으므로 송(訟) 구사에 "돌아와 바른 이치[命]로 나아가면 변하여편안하고 바르다"라 하고 그 '상전'에 "잃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효의 윗글에 또한 "주장하고 지킴에 변화가 있으니 바르면 길하다"는 말이 있으므로 '상전'의 글 역시 동일하다.

고(蠱)

'단전(彖傳)' 고는 강(剛)이 올라가고 유(柔)가 내려오며 공손하게 멈춘 것이 고이다[蠱, 剛上而柔下, 巽而止, 蠱].

'정전(程傳)'은 고를 다스리는 도리로 보았고, '본의(本義)'는 폐단이 쌓여 좀먹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아 두 설이 같지 않다. 내가 생각건대, '강이 올라가고 유가 내려온다'는 것은 비(否)괘에서 "위아래가 교제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과 같다. 아랫사람이 부드럽고 공손하기는 하나 어떤 일을 할 수가 없고, 윗사람은 억지로 멈추지만 기꺼이 하지 않으므로 폐단이 쌓여 고가 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크게 형통해서 천하가 다스려진다"고 한 이유는 혼란이 극에 이르면 반드시 다스려지고, 성인의 마음은 할 수 없는 때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시 크게 형통할 수 있음과 고를 다스리는 도리를 말할 수 있다. 이른바 '큰 내를 건넘이 이롭다', '갑에 앞서 사흘하며 갑뒤에 사흘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 때문에 "마치면 시작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혼란이 그치면 반드시 다스림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論語解說(21)

논 어 해 설

▣ 權貞澤 花山府院君宗會長 成均館 典儀

〈지난호에 이어〉

제6편옹야(雍也)

제16장

공자가 말하였다. "실질[實質]이 문식[文飾]을 이기면 야비해지고. 문식이 실질을 이기면 서사[書士]에 그치고. 문식과 실질이 섞여서 조화를 이룬 연후라야 군자가 된다."

[원문]

子曰 質勝文則也요 文勝質則史니 文質이 彬彬然後에 君子니라.

[자왈 질승문칙야요 문승질칙사니 문질이 빈빈연후에 군자니라.]

[이해]

본바탕과 수양이 혼연일체의 조화를 이루어야 훌륭한 인격이 완성될 수 있어서 실속 없이 거죽만 꾸미거나 어느 한쪽이 치우치게 되면 결국 아무쓸모 없이 되고 만다는 뜻이다. 여기서 서사의 원문은 사인데 옛날의 사관은 전문적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관장하는 소임을 맞았던데 따른 의미를 취한 것이다.

제17장

공자가 말하였다. "사람의 삶이란 그 결과가 정직하기 마련이니 정직함 없이 살아가는 것은 요행이 화를 모면하고 있는 것이다."

[원문]

子曰 人之生也直하니 罔之生也는 幸而免이니라.

[자왈 인지생야직하니 망지생야는 행이면이니라.]

[이해]

천도[天道]는 무사하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공평하기가 추상[追想]같아서 정직하지 않으면서도 별 탈 없이 지내는 것은 요행이 필연적으로 어느 때인가 맞이해야만 될 재양을 아직은 가까스로 피하고 있을 따름이라는 경계이다.

제18장

공자가 말하였다. "지식을 말해줘도 괜찮지만 중등이하의 사람들한테는 높은 지식[知識]을 말해주는 것이 불가능하다."

[원문]

子曰 中人以上은 可以語上也니와 中人以下는 不可以語上也니라.

[자왈 중인이상은 가이어상야니와 중인이하는 불가이어상야니라.]

[이해]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베푼다 해도 이를 받아들일 역량[力量]이 구비되어 있지 못하면 공염불에 그치고 만다. 교육이 대상의 자질[資質]에 맞게 실행될 때 보다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중인이라 사람의 품격[品格]을 상중하로 구분하고 다시 각각 세 등급으로 나눈 데서 기인된 말이다.

제19장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중등[中等] 이상의 깨우침이 있는 사람한테는 높은 지식을 말해줘도 괜찮지만 중등이하의 사람들한테는 높은 지식[知識]을 말해주는 것이 불가능하다."

[원문]

子曰 中人以上은 可以語上也니와 中人以下는 不可以語上也니라.

[자왈 중인이상은 가이어상야니와 중인이하는 불가이어상야니라.]

[이해]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베푼다 해도 이를 받아들일 역량[力量]이 구비되어 있지 못하면 공염불에 그치고 만다. 교육이 대상의 자질[資質]에 맞게 실행될 때 보다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중인이라 사람의 품격[品格]을 상중하로 구분하고 다시 각각 세 등급으로 나눈 데서 기인된 말이다.

제20장

번지가 지혜에 대해 물으니. 공자가 말하였다. "백성이 따를 정의를 세우기 힘쓰고 귀신을 공경하되 그것을 멀리 한다면 가히 지혜롭다 말할 수 없다."인자함에 대하여 물으니, 공자가 말하였다. "인자한 사람은 남보다 먼저 어려운 일을 행하고 얻는 것을 뒤에 가지기 때문에 인자하다 말하는 것이다."

[원문]

樊遲問知하되 子曰 務民之義요 敬鬼神而遠之면 可謂知義니라 問仁하되 曰 仁者先難而後獲이라 可謂仁義니라.

[번지문지하되 자왈 무민지의요 경기신이원지면 가위지의니라 문인하되 왈 인자선난 이후획이라 가위인의니라.]

[이해]

번지의 질문에는 천도의 기본 틀을 잘 지키면서 주어진 현실에 충실이 우선되는 삶의 자세가 바람직하다는 가르침을 내리고 있다. 막연한 신의 가호나 특혜를 기대하지 않고 자기 일에 전력을 경주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간이고 정의로우나 어려운 일엔 남보다 앞장서고 이익에 배분에는 뒤로 물러서는 인간됨이 인자한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제21장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지혜[知慧]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인자[仁者]한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주 음식이나 인자한 사람은 대체로 조용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즐겁게 살고 인자한 사람은 장수[長壽]한다."

[원문]

子曰 知者는 樂水하고 仁者는 樂山이니 知者는 動하고 仁者는 靜하며 知者는 樂하고 仁者는 壽니라.

[자왈 지자는 요수하고 인자는 요산이니 지자는 동하고 인자는 정하며 지자는 요하고 인자는 수니라.]

[이해]

지혜로운 사람은 사리[事理]에 통달하여 두루 막힘이 없는 것이 물과 같고 의리에 안정하여 후덕[厚德]게 굴데 변하지 않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산과 같다는 뜻으로 냉철[冷徹]하고 이지적인 인간성은 인자[仁者]함에 통달한다는 뜻이다.

〈다음호에 계속〉

특별기고 〈59회〉

항일독립운동의 선봉 애국지사 백인(百忍) 권준(權晙) 장군〈11〉

▣ 權 仁 浩 (철학박사, 대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권장군은 1917년 경성공업전습소 졸업 후 광복회를 조직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다가 1919년 중국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후 의열단을 창립에 동참하였고 의열단의 종로경찰서, 총독부, 동양척식회사의 투탄사건과 일본 동경 이중교(二重橋) 투탄의거 때(일왕저격) 자금조달의 지원활동을 하다가 연루되어 국내에서 일시 옥고를 겪은 뒤, 다시 중국 상해로 망명하여 국립 동제대학(同濟大學) 졸업하였고, 1926년 황포군관학교 졸업 후 중국 중앙군 복무하며 북벌전쟁 참여, 제87사단장인 감장(甘將 ;준장准將) 직위에서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하였고, 동방피압박민족연합회 한국대표로 참가 집행 위원에 선출되었다. 1932년 10월 의열단 김원봉 단장이 조선혁명군사정치군관학교를 남경에 세워 독립투사를 양성할 때도 권장군은 교관으로 간부 양성하였고, 1935년 7월 조선민족혁명당 입당하였다. 1937년 중일전쟁 때 조선의용대 비서장(한국광복군 제1지대 전신)으로 항일무한방위전(抗日武漢防衛戰)에 참가하였고, 1944년 대한민국 중경 임시정부 내무차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하다 1945년 8.15광복을 맞았던 것이다. 이 때 중국 무한지구 교포선무단장 겸 한국광복군 제5지대장으로서 동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귀국하는 것을 도왔다.

중국군에 복무하면서 일제말기 임정 활동에 합류한 사례는 김홍일·박기성·박시창·채원개·최용덕 등의 경우가 있다. 의열단의 창립동지이며 황포군관학교 동기생인 김원봉 등과 달리, 그가 중국군에 복무하며, 직·간접적으로 한인독립운동을 지원해 온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 것이다. 한국인으로서 중국군에 복무함으로써 한인독립운동진영에서 활동하는 여타 독립운동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명의 안전과 신분의 안정을 보장 받을 수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항일전쟁기 중국의 주류사회로서, 획일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이 수직적으로 강요되는, 군대조직 내에서 외국인(특히 당시 '조선인'으로서)의 신분으로 생활하면서, 맞닥뜨리는 일상사의 어려움과 상처를 상정해 볼 때, 이들의 삶의 질이 나았다고 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 한 예로서 중국에서 독립운동 당시 사용한 권준 장군과 김홍일 장군의 변성명 사례다. 즉, 권준 장군은 권중석(權重錫), 강병수(姜炳秀), 진민각(陳民覺), 장종화(張從化), 장수화(張樹華), 양무(揚武) 등으로 김홍일 장군은 최세평(崔世平), 왕웅(王雄), 왕일서(王逸曙), 왕부고(王復高) 등이다. 중요한 사실은 이들 두 분 장군은 자신의 조국을 되찾고, 자신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한 항일독립운동의 행로로써, 각각 중국 광동성 황포군관학교와 귀주성 귀주강무학교 출신으로서 중국군에 복무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현지 주류사회에 적극 뛰어들어 자신의 능력과 위상을 키워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신의 조국과 민족에게 유익하고 유리한 공헌을 추구해 나갔다는 점은 되새겨 보아야 할 일이다.

권준 장군은 1946년 12월에 귀국하였으며, 이후 건군(建軍)에 참여하였다. 그 후 육사 8특 졸업 후 대령 임관하여, 1949년 5-6월에 8개 사단을 창설할 때, 권준 장군은 광복군 출신으로서 1949년 6월 20일 서울 용산에서 초대 수도경비사령관으로 취임하였다. 이 때 각 사단장의 출신배경은 광복군 출신이 4인(권준, 이준식, 송호성, 최덕신), 일본군 출신이 4인(김석원, 유승열, 유재흥, 이형근)이었다. 그 이후 권장군은 육군 제1훈련소 소장, 초대 육군 제3관구 사령관, 초대 육군 제50 사단장 등을 역임하였다.

1954년 을지, 충무, 화랑 무공훈장, 금성 무공포장, 6.25 종군기장, 공비토벌기장 등을 수여받았다. 1956년 육군소장으로 예편하였고, 1959년 10월 27일 충청남도 대덕군 유성면 구암리 63번지에서 별세(향년 65세)하였다. 1968년 3월 1일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받았다. 2010년 9월 국가보훈처·광복회·독립기념관 주관의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었다. 2011년 10월 독립기념관 애국시·어록비 제막(독립기념관 100호)을 하였고, "일본과 항전한 것은 그 목적이 국가주권을 획득하며 영토의 보전과 민족의 독립 및 자유평등을 쟁취하는데 있다(권준, '전략과 전술' 1948년) 2014년 6월 제50사단 <권준홀>이 개관되었다.

이후 권준 장군에 대한 연재 글은 권장군의 손자인 중앙대 공과대 권영빈 교수가 이메일로 보내온 자료를 중심으로, 기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계속하고자 한다. 후손인 권교수와 연락이 된 것은 대종원 권오복 종보 편집위원의 연락처 소개로, 2014년 4월부터 수차례 통화를 후 2014년 7월 24일에 이메일의 첨부파일 6개(① 권준장군 약력-가족2014.07.hwp ② 민긍호장군충혼탑기.JPG ③ 친필3.1절축사.JPG ④ 친필3.1절축사워드.hwp ⑤ 나의 할아버님 회고담.docx ⑥「관동창의군 대장 민긍호묘소」관련(생활의 지혜) 2011-11-04 00:05:56.jpg)를, 8월 23일에도 첨부파일 3개 (①「연개소문」논문 pdf.pdf ②사진3장 파워포인트.pptx ③「전략과 전술」pdf.pdf)를 보내 주었다.

〈다음호에 계속〉

明心寶鑑

명 심 보 감

▣ 권 혁 채 (본원 종사 연구위원)

鴻毛(홍모⇒ 기러기 털, 아주 가벼운 것을 나타내는 말. 泰→클 태, 鴻→기러기 홍(큰 기러기를 칭함), 毛→털 모, 輕→가벼울 경, 重→무거울 중, 거듭 중, 生→날 생.

明心寶鑑 繼續 省心篇 下

● 王良이曰(왕량이왈)欲知其君(욕지기군)인대(先視其臣)하고 欲識其人(욕지기인)인대 先視其友(선시기우)하고 欲知其父(욕지기부)인대 先視其子(선시기자)하라 君聖臣忠(군성신충)하고 父慈子孝(부자자효)이니라.

해설 : 왕량이 말하기를 "그 임금을 알려고 한다면 먼저 그 신하를 보고, 그 사람을 알려고 한다면 먼저 그 친구를 보고, 그 아비를 알려고 한다면 먼저 그 자식을 보라. 임금이 거룩하면 그 신하가 충성스럽고, 아비가 인자(仁慈)하면 자식이 효행 하느니라"고 하셨다.

참고 : 왕량(王良⇒춤추 시대(春秋時代)의 진(晋)나라 사람이다. 慈→사랑할자, 자애로움을 말함. 良→어질 량(양), 欲→하고자할 욕, 知→알 지, 臣→신하 신, 識→알 식, 視→볼 시, 본받을 시

● 家語에 云(가어에 운)水至淸則無魚(수지청즉무어)하고 人至察則無徒(인지찰즉무도)니라.

해설 : 가어에 이르기를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고, 사람이 너무 살피면 친구가 없느니라."

참고 : 家語⇒공자가어(孔子家語)를 말하며 공자의 언행과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사실들을 모은 책으로 현재 전하는 것은 10권이 있다. 淸→맑을 청, 察→살필 찰, 徒→무리 도, 魚→물고기 어.

● 許敬宗이 曰(허경종이 왈) 春雨-如膏(춘우-여고)나 行人(행인)은 惡其泥濘(악기니녕)하고 秋月(추월)이 揚輝(양휘)나 盜者(도자)는 憎其照鑑(증기조감)이니라.

해설 : 허경종이 말하기를,"봄비는 기름과 같으나 길가는 사람은 그 질퍽질퍽 하는 진창을 싫어하고, 가을의 달빛은 극히 밝게 비치나 도둑놈들은 그 밝은 달빛을 싫어 하느니라."고 하셨다.

참고 : 허경종(許敬宗)⇒당(唐)나라 때의 정치가로 자는 연족(延族). 敬→공경 경, 膏→기름 고, 泥→질흙 니, 濘→진흙 녕, 揚→날릴 양,들 양, 輝→빛날 휘, 照→비칠 조, 鑑→거울 감, 盜→도적 도,

● 景行錄에 云(경행록에 운)大丈夫(대장부)는 見善明故(견선명고)로 重名節於泰山(중명절어태산)하고 用心精故(용심정고)로 輕死生於鴻毛(경사생어홍모)니라.

해설 : 결행록에 이르기를, "대장부는 착한 것을 보는 것이 밝음으로 명분과 절의(節義)를 태산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마음 씀씀이 깨끗함으로 죽는 것과 사는 것을 아주 기러기 털보다 가볍게 여기니라."고 하셨다.

참고: 견선명(見善明)⇒ 선을 보는 것이 밝다. 名節(명절)⇒명분과 절의,

● 悶人之凶 (민인지흉)하고 樂人之善(낙인지선)하며 濟人之急(제인지급)하고 救人之危(구인지위)니라.

해설 : 남에게 흉한일이 있으면 민망하게 여기고, 남의 착하게 하는 일을 즐겁게 여기며, 남의 급한 것을 건지고, 남의 위태함이 있으면 구하여야 하느니라.

참고 : 悶→ 민망할 민, 濟→건늘 제, 凶→흉할 흉, 急→급할 급, 救→구할 구, 危→위태로울 위

● 經目之事(경목지사)도 恐未皆眞(공미개진)이어늘 背後之言(배후지언)을 豈足深信(기족심신)이리오.

해설 : 눈으로 직접 본 일도 모두 참되지 아니하니까 두렵거늘 뒤에서 하는 말을 어찌 가히 깊이 믿을 수 있으리오.

● 不恨自家汲繩短(불한자가급승단)하고 只恨他家苦井深(지한타가고정심)이로다.

해설 : 자기 집 두레박줄이 짧은 것은 탓하지 않고 남의 집 우물 깊은 것만 탓하도다.

참고 : 豈→어찌 기, 汲→물기를 급, 繩→노 승, 새끼 승, 恨→한탄 한, 井→우물 정, 短→짧을 단, 苦→괴로울 고, 쓸 고, 他→다를 타, 남 타.